



■ 레저휴가 - 백산 로복정자산
 초여름이 되면 백산 립강의 로복정자산은 고산초지(高山草甸)가 푸르게 우거지고 곳곳에 야생화가 아름답게 피어난다. 먼곳에는 안개와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겹겹이 쌓인 봉우리들이 은은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산과 물과 숲과 함께 48 시간 힐링

주말에 만나보는 생태관광 명소들

장춘 대정자(大頂子)산에서 즐기는 상쾌한 도보, 립강(臨江)의 로복정자산(老禿頂子山)에서 만끽하는 고요한 휴식, 사평 인흥리문화관광거리에서 느끼는 깊이있는 문화적 감성, 반석 응풍촌의 정겨운 시골 정취, 통화 운해(云海)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차간호의 생동감 넘치는 생태 풍광,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변경 풍경선'으로 불리는 G331 국도를 따라 드라이브하며 만나는 국경의 웅장한 절경까지...

길림성은 풍부한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지를 선사하고 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집앞에서 '시와 원방(詩和远方)'의 로망을 현실로 만들어준다. 단 하루나 이들의 짧은 주말 여행만으로도 산과 물, 그리고 울창한 숲이 빚어내는 생생한 자연의 파노라마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

/ 글 손맹번기자 / 사진 길림일보



▲ 건강운동 - 장춘 대정자산

해발 400여미터의 장춘 대정자산에서는 도보와 캠핑을 즐길 수 있으며 전망대에 오르면 장춘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 자연풍광 - 통화 운해

통화시 동창구 김창진 미파전(微波站)의 운해는 자연이 선사한 장엄한 그림이다.



▲ 문화거리 - 사평 인흥리

어둠이 내리면 사평시 인흥리문화관광거리는 뜨거운 열기로 차넘친다. 고전의 깊이와 현대의 감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 향촌관광 - 반석 응풍촌

반석시 응풍촌은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깊이 발굴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경관을 갖춘 아름답고 풍요로운 산장(山莊)을 조성해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 생태미경 - 송원 차간호

초가을의 차간호는 진한 먹물로 그린 유화를 방불케 한다. 다채로운 호반 경치와 푸르른 호수 물결이 서로 어우러져 눈부신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 가장 아름다운 변경 풍경선 - G331

G331 길을 따라 펼쳐지는 절경은 전국 각지의 여행자들에게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아름다운 풍광에 매료된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잊지 못할 추억의 인증사진을 남긴다.